

II. 중세시대의 수도원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제국의 수도를 지금의 이스탄불인 콘스탄티노폴리스(Constantinopolis = Constantinople.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한 이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이 분열은 로마제국의 옛 수도 로마의 정치권력이 약화될수록 가속화되었다. 특히 교황 그레고리우스(Gregorius) 1세가 교황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로마 도시의 정치지도자로 활약하면서부터 이미 서유럽은 황제 중심의 기독교 제국으로 자리를 잡은 동유럽과 달리 교황 중심의 기독교 제국으로 변모했는데, 이것이 후대에 신성로마제국으로 알려진 서로마제국의 모습이다.

초대교회의 기독교 수도원은 이집트에서 발생하여 동방교회에서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서방교회로도 전파되는 양상이었다. 그런데 중세시대 동로마제국과 서로마제국의 수도원을 서로 비교해보면 수도원의 확장과 영향은 동로마제국보다는 서로마제국에서 훨씬 강력하고 지배적이었다. 중세시대의 서로마제국은 일종의 거대한 수도원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사가 피터 브라운(Peter Brown)이 유럽의 등장을 <기독교 세계의 발흥>(The Rise of West Christendom)이라고 본 것은 옳다. 중세 서유럽의 기독교 세계 형성은 교회보다 오히려 수도원의 영향이 훨씬 더 막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도원의 영향력은 사제가 수도사처럼 청빈, 순결, 복종의 세 가지 서약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중세시대 수도사와 사제 간의 갈등이 없지 않았지만 수도사는 쉽게 사제가 될 수 있었다. 수도사는 영토 확장의 주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때론 국경을 넘나들면서 외교 사절로 활약하곤 했다. 중세수도원은 교황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에 주축이었고 수도사들은 중세 이단 문제를 해결하는 선봉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중세수도원은 대학이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13세기까지 청소년을 가르치는 초등부터 고등까지 전 과정의 교육기관 역할도 감당했다. 중세 내내 수도원은 교회의 뜨거운 심장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에서는 중세 수도원이 모든 것을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양분하는 성숙 이원론, 즉 교회와 세상, 성직자와 평신도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에 천착한 부정적 유산이다. 수도원적인 신비주의는 이분법적 세계관의 극단적 형태인데, 구원과 창조를 서로 무관한 것처럼 완전히 분리시킨다. 이것은 마치 구속주와 창조주가 마치 서로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인식하는 오류로 귀결된다. 수도원과 신비주의의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개혁은 구원을 재창조로 정의하여 창조주와 구속주의 동일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창조와 구원의 목적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성직자의 결혼을 가르치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사제와 수도사의 비혼 서약은 무효이므로 수도원 역시 자동 폐기되어야 한다.

청빈, 순결, 순명이라는 삼중 수도사 서약은 성직자를 평신도와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인데, 이것은 수도사에게만 아니라, 사제에게도 요구된다. 이것으로 중세의 세 가지 계급 귀족과 기사와 성직자

1. 기독교 수도원의 발생

사도 시대 이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문자적으로 따르려는 사람들에 의해 일찍부터 금욕적인 삶이 선호되었다. 금욕적 삶은 이미 유대 묵시적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팔레스틴의 에세네파(Essenes) 공동체와 이집트의 치료자들(Therapeutae) 공동체가 거기에 속한다. 이들은 모두 현세 보다는 내세를 위한 삶을 살았다. 초기 기독교 수도원의 발생지는 유대 지방과 이집트의 스키티스(Scetis) 등인데, 이는 보다 일찍 존재했던 유대교의 금욕적 공동

체들의 위치와 거의 일치한다.

유대교의 종말론적 공동체 외에도 초대 기독교 이전에 금욕적 삶을 추구한 것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 스토아학파, 그리고 견유학파(Cynics. ‘개 같은 삶’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κυνικός βίος’에서 유래한 것으로 노숙자의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가르친 무소유주의자들)와 같은 헬라 철학들이다. 세 사상 모두는 이원론적 세계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초기 기독교가 금욕적인 삶을 요구한 것은 어느 정도 유대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내세의 상급에 대한 기대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동기는 어느 정도 헬라 철학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경건을 방해하는 요소들로 가득 찬 현세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인 내세를 동경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이었다. 하지만 기독교 금욕의 결정적 동기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imitatio Christi) 삶이다.

2-3세기의 기독교 금욕은 금식, 기도, 명상, 가난, 독신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런 기독교 금욕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사도들처럼 방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무리이고, 다른 하나는 독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무리이다. 4세기 초에 나타나기 시작한 기독교 수도원은 이와 같은 기독교 금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다. 초대 교회의 역사가 기독교 금욕에서 기독교 수도원으로 이행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3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원인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개인 구원에 더 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 즉 금욕과 관상과 기도 등을 방해 받지 않기 위해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있는 교회로부터 떠나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전, 특히 황제 데키우스(Decius. c.201-252. 재위: 249-251)와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 c.244-311. 재위: 284-305)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나 한적한 곳으로 은둔한 것이다. 세 번째 원인은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교회가 급속한 성장으로 조직화, 정형화, 대형화 과정을 겪으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증가와 더불어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다.

교회의 세속화는 교회 내의 규율이 문란해져 가는 현상과 주교들의 독단적인 횡포라는 현상을 낳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한 회의와 반발심이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을 세상과 제도 교회 밖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광야와 사막 같은 한적한 곳에서 생활하는 초기 기독교 수도사들은 세상과 분리된 채 금식, 기도, 명상, 그리고 노동을 통해 금욕적인 생활을 추구한 반면에, 학문 연구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박해가 사라진 4세기부터 금욕적인 삶은 평화 시대의 영광스러운 순교로 이해되었다. 즉 순교 개념이 영적으로 해석되어 가장 금욕적인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평생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보았다. 4세기 초중반부터 이집트의 기독교 파피루스에는 수도사를 의미하는 모나코스(monachos)¹⁾라는 단어와 이 단어의 동의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을 뜻하는 아포타티코스(apotaktikos)와 은둔자를 뜻하는 안코리테(anchorite) 등과 같은 순수한 그리스어가 등장한다. 이들은 대부분 독신 생활을 강조했다.

4세기 초에 발생한 기독교 수도원주 형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형태는 세상과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금욕주의(asceticism)인데, 사제들의 공동생활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로는 독거하는 은둔주의(anchoretism)이다. 이것은 엘리야와 세레 요한처럼 세상을

1) 이것은 “홀로”, “혼자의”를 뜻하는 헬라어 형용사 *μονος*라는 단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monk (수도사), monastery (수도원), monasticism (수도원 제도) 등의 단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다른 설로는 monachos라는 단어가 “단일한”, “홀로” 혹은 “혼자”를 의미하는 시리아어 전문 용어이며, 수도원장을 뜻하는 abbot라는 단어 역시 아버지를 의미하는 시리아어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등지고 외딴 곳에서 고행을 통해 자신 속에 있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은둔 독거 형, 즉 초기 사막 교부들의 삶이 여기에 속한다. 세 번째로는 사회와 제도권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수도원을 짓고 공동생활을 하는 수도원주의(Monasticism)이다. 모든 수도사들이 함께 거주하며 생활한다는 의미에서 공주수도원 형태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수도원의 모체다.

1-1. 이집트의 은둔수도원

이집트(Egypt) 사막에 수도사들이 등장하기 직전에 시리아(Syria)에서는 언약의 아들들(딸들)이라는 형제단들이 있었다. 이들은 세례를 받을 때 독신생활과 기도생활과 순회 예언 사역 및 접촉이 있었던 마을들 내에서의 평신도 사역을 수행할 것을 서약했다. 이들 중에는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지나치게 적용하여 결혼을 부정하고 가정과 사회 질서를 무시하며 성직자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자들도 많았다. 독거하면서 고행하는 금욕주의자들은 처음에 혼자였으나, 그들의 명성으로 인해 많은 제자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한 곳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기독교 수도원 운동의 기원이다. 스승과 제자들, 동료들이 한 장소에 살았지만 그들은 한 공동체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각기 따로 자신의 고행을 연마했다.

대표적인 은둔 수도사는 안토니우스(Anthonius. ?250-?356)다. 그는 기독교 수도원주의의 창시자라 불린다. 안토니우스의 삶은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아타나시우스(Athanasius)가 저술한 <안토니우스의 생애. Vita Antonii>에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안토니우스는 콥트족(Copts)의 기독교 가정 출신으로 251년경에 이집트 테베(Thebae; Thebes; Thebaid; Thebais = Θήβαις) 근방의 코마(Coma)에서 태어났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18살 혹은 20살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다. 당시 어느 날 교회(τὸ κυριακόν)에 갔다가 주님께서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하신 말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마 19:21. 참고. 눅 18:22)는 낭독소리를 듣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동생을 여신도들에 맡긴 다음, 홀로(καταμόνας) 금식과 기도와 명상과 고행과 노동을 반복하면서 극도의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은둔자의 삶을 살아온 어느 노인을 본받으려고 애썼다. 하루에 한 끼 해가 진 뒤에 식사했고 평상시 음식은 빵과 소금, 그리고 음료는 물이 전부였으며 가끔 대추야자 열매를 먹었다. 이틀 내지 닷새 동안 금식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한잠도 자지 않는 철야기도도 자주했다. 텃밭을 경작했고 털옷과 양가죽에 끈으로 묶고 다녔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도와 노동과 빈민 구제에 힘쓸 것과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라고 당부했다. 기도로 병자들과 귀신들린 자들을 고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기적의 은사를 지나치게 중시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은 기적이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타나시우스가 기록한 <안토니의 생애>는 사탄의 온갖 시험 내용으로 가득하다.

사탄은 안토니우스의 성공적인 금욕 생활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없이 공격했으나 모두 허사였다. 안토니우스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마다 겸손한 자세로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다. 그는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심지어 황제 콘스탄티누스도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그를 영적 아버지로 생각한다고 밝힐 정도였다. 안토니우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교부 소경 디디무스(Didymus)를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육체의 눈을 잃었다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파리들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영적인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천사들도 이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그분의 빛을 받습니다.”

1-2. 동방의 공주수도원

4세기 중반부터 대체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공주수도원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코이노비텐툼(koinobitenum, 공동생활 = κοινός + βίος)이라 부른다. 함께 먹고 함께 사는 공동생활 수도원은 은둔 수도 생활에 비해 위험도 덜하고 남녀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교회에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공주수도원의 창시자는 파코미우스(Pachomius, ?287-346)인데, 안토니우스와 동시대인으로 역시 이집트 출신이었고 명성도 그에 못지않았다. 파코미우스도 처음에는 어느 스승을 찾아가서 은둔 수도사 생활을 했는데, 은둔 수도사 생활을 돕기 위해 자신과 같은 독거 수도사들을 모아 공동생활을 시작했다. 은둔 수도사를 방문하는 사람도 많았고 방문자들을 상담하는 이도 자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공동생활이었다.

파코미우스는 이교도 부모에게서 태어나 군대 생활 중에 개종하게 되었고 후에 세례를 받았다. 313년에는 완전에 이르는 도를 배우기 위해 은수자 팔레몽(Palemon)을 찾아가 수년간 그의 제자로 그와 함께 지냈다. 325년에는 환상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대로 이집트 남부 나일강 상류의 테베에 타베니시(Tabennisi = Tabenna)라는 성공적인 수도사공동체인 공주수도원을 세웠다. 그가 만든 수도규칙에 따르면,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의 공동식사, 하루 두 번의 개인 기도시간 및 공동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을 가지고, 주일미사에는 공동으로 참여하고, 의복과 모든 소유물은 공유하며 외출은 다른 수도사가 동반할 때만 가능하다. 수도원 생활의 최고 덕목은 상위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순명으로, “수도원 전체를 지휘하고 수도사 전체에 해당하는 생활 질서는 수도원의 책임자가 정한다.”

이런 수도원 규칙은 수도원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규칙의 권위가 성경과 거의 비슷할 정도였다. 수도원 규칙 준수는 모든 수도사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었고 수도사 생활의 형태나 목적이 동일했기 때문에 이전의 독거 수도생활의 특징이었던 신기하고 특이한 생활방식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파코미우스의 수도사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로 간주되었는데, 여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년의 시험 기간을 통과해야 했다. 수도원 전체의 질서와 조직을 위해 복종의 미덕을 강조함으로써 권위를 강화다. 그래서 규칙에 대한 복종, 특히 상급자에게 대한 복종은 공주수도원의 필수 덕목이 되었다. 육체노동 역시 수도원 생활의 필수 요소였다. 또한 가난도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했는데, 파코미우스 수도원은 모든 수도원 재산을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주장함으로써 수도원과 수도사는 모두 무소유를 표방했다.

“수사들은 영적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농사, 선박 건조, 바구니 제작, 요와 이불 짜기 등 노동을 병행했으며, 노동을 통해서 번 수입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수사들은 금욕적 경건의 등급에 따라 스물 네 계층으로 구분되었고, 각 계층에 헬라어 알파벳 문자로 이름이 붙었다. 이들은 독방 하나를 세 명이 함께 사용했다. 식사는 공동으로 했으나, 식사 도중에는 얼굴을 가린 채 엄격히 침묵을 지켰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손짓으로 말했다. 병든 수사는 각별히 보호를 받았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성찬을 거행했다. 파코미우스는 대수도원장으로서 전체를 감독했다. 각 수도원마다 소수도원장과 청지기가 있었다.”(필립 샤프, <니케아 시대와 이후의 기독교> 교회사전집 3권, 188-189)

파코미우스가 세운 수도원과 이를 모체로 한 수도원들은 적어도 후기에는 신학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파코미우스 사후 공주수도원은 몰락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는 수도원에 지원자가 너무 많이 몰려들어 수도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마을이나 부락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파코미우스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도사들의 부지런한 노동으로 많은 상품을 생산한 덕분에 수도원이 부를 축적한 안정적인 장소가 된 것도 공주수도원 몰락의 한 원인이었다. 이집트에서 공동체수도원이 급속하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으로 은둔 수도사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은둔 수도사는 은둔적 금욕 생활이 기독교적인 삶의 완전한 모범이며 완전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은둔 수도 생활과 공동 수도 생활의 장점을 결합하려고 한 교부는 가이사랴의 바실리우스(Basilios [=Basil] of Caesarea = Saint Basil the Great. 330-379)였다. 귀족 출신인 그는 소아시아 지역 세바스테의 주교이자 금욕적 수도사 유스타티우스(Eustathius of Sebaste)의 영향을 받아 본도(Pontus)와 갑바도기아(Cappadocia) 지역에 수도원과 수녀원을 설립했다. 또한 교육을 장려 했으며 아리우스주의와 투쟁함으로써 교회에 유익을 주는 수도원으로 자리 잡게 했다. 그는 노동과 공동체 생활을 완벽한 기독교인의 삶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했다. 갑바도기아 교부로 불리는 세 신학자, 즉 바실리우스와 그의 동생 니사의 그레고리우스(Gregorius of Nyssa. c.335-c.395), 그리고 그의 친구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우스(Gregorius of Nazianzus. c.329-390)는 학문적 신학적 연구를 금욕적 은둔 훈련과 결합한 최초의 교회지도자들이었다.

바실리우스는 수도원을 교회와 같은 곳으로 간주하고 구제와 노동과 교육의 장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동방수도원의 전형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바실리우스는 동방 기독교 수도원의 진정한 창시자, '동방 수도제도의 아버지'로 불린다. '도시 속의 수도원' 형태는 그에게서 탄생했다. 파코미우스처럼 바실리우스도 수도규칙을 작성했다. 그의 수도규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원본은 없고 루피누스의 라틴어 번역과 시리아 번역만 남아 있다. 하나는 55개의 문답으로, 다른 하나는 313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코미우스의 수도규칙과 같이 바실리우스의 수도규칙도 공통적인 원칙을 따르는데, 하나는 파코미우스와 일치하는 것으로 성경이 모든 것의 절대적 규범이라는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바실리우스만의 독특한 원칙으로 성경이 교회의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성화하게 만드는 길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수도사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으로 정의했고 이런 노력은 수도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된다고 보았다.

본도 출신의 에바그리우스(Evagrius Ponticus = Evagrius of Pontus. 345-399) 역시 금욕적 수도사로서 갑바도기아 교부들의 제자요, 사막교부들의 제자였다. 에바그리우스는 370년경 바실리우스에 의해 가이사랴 교회의 독경사로 발탁되었고 380년경에는 콘스탄티노플에서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를 만나 그의 작은 교회 부제가 된 후, 당시 성행하던 아리우스주의에 맞서 정통 교리를 옹호했다. 383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수도사가 되었다. 380/381년 감람산에 세워진 수도원에 입문했는데, 감람산 수도원의 건립자는 동방 교부들, 특히 오리겐의 저술을 라틴어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된 라틴어 사도신경 본문과 해설을 남기도 한 루피누스(Tyrannius Rufinus = Rufinus of Aquileia. 344/345-411)와 로마 귀족가문 출신으로 사막의 어머니(Desert Mother)라 불리는 멜라니아(Saint Melania the Elder = Sancta Melania Maior. c.350-c.410)이다. 그곳에는 수도원과 수녀원이 각각 세워졌다.

에바그리우스는 기독교(Χριστιανισμός)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δόγμα τοῦ Σωτῆρος ἡμῶν Χριστοῦ)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기독교 교리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 즉 실천적(πρακτικός) 것과 자연적인(φυσικός) 것, 그리고 신학적인(θεολογικός) 것으로 제시한다 그는 정념과 순수한 마음 사이에 여덟 가지 심각한 유혹, 즉 탐식, 욕정, 탐욕, 분노, 우울, 나태, 허영, 자만이 끼여 있다고 주장한 최초의 신학자다. 이 여덟 가지 유혹 가운데 허영과 자만을 하나로 만들어 중세시대 일곱 가지 대죄가 되었는데, 이것이 유명한 서양 기독교의 칠거지악(七去之惡)이다. 에바그리우스의 주장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때 비로소 정념(πάθος)을 벗어난 상태인 무념무상(ἀπάθεια)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희생적인 사랑이 나오고 영혼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황금 입으로 알려진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요한 크리소스토무스(Johannes Chrysostomus = Ἰωάννης ὁ Χρυσόστομος. c.347-407)도 역시 바실리우스처럼 교회와 수도원을 긴밀한 관계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금욕적 수도생활을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삶으로 간주하여 안디옥 부근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며 살면서 설교할 때 “나가서 수도사들을 보라!”는 말을 자주 언급했다고 전한다. 수도사의 삶을 본받도록 권면하고 예찬하는 일에 열정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수도사의 삶보다 세속 성직자의 삶이 훨씬 힘들뿐만 아니라, 후자가 전자보다 더 많은 재능과 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자신의 구원에만 열중하는 수도사에 비해 세속 성직자란 자신만 아니라 교인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도 져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리아 즉 시리아 지역에서도 금욕적 삶을 추구하는 기독교 수도사들이 출현했는데, 이것은 이집트 수도원의 금욕 전통과 무관한 독자적인 것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기독교를 수용한 초기부터 예비세례신자(Catechumen)에게 성적인 순결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할 정도로 금욕적 특징이 강했다. 기묘한 형태의 개인적 은둔 금욕을 공동체 수도원의 금욕보다 수준 높은 수도생활이라고 인정했다. 기둥 위에서 생활하는 주상(住上) 금욕으로 유명한 시므온(Symeon. c.390-459)이 대표적인데, 그는 30년 동안 9미터 높이의 기둥 위에서 생활했으며 기이한 주거 생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았다고 전한다.

독일의 초대교회 전문 가톨릭 학자 칼 수소 프랑크(Karl Suso Frank. 1933-2006)는 평가하길, “동방교회의 수도원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종교운동에 속한다. 은둔자들은 물론 수도사 공동체들도 일반적 교회의 모습과는 좀 다른 독자적 형태이긴 하지만, 이들 역시 기독교의 교회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4세기 후반에 들어가면서 사제들이 교회와 수도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자신들 스스로 ‘사제가 주업이고 수도사가 부업’인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 설정을 하려 한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의제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 회의를 통해서 수도원은 각각의 주교 관구에 편입되고, 주교들에게 수도원에 대한 건립 심사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함으로써 교회와 수도원의 서열이 정해졌다.” (칼 수소 프랑크,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 최형걸 역 (서울: 은성, 1995), 65)

1-3. 서방의 수도원

서방세계에 수도원운동을 처음 소개한 인물은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296-373)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그는 <안토니우스의 생애> 저술가다. 아리우스(Arius) 이단과 논쟁을 벌인 논쟁가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Nicea. 325) 공회를 통해 승리한 후에도 계속 아리우스주의자들과 논쟁함으로써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변호한 것으로 유명하다. 서방의 수도원이 동방 수도원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모방이나 이식 수준은 아니었다. 4-5세기의 서방 수도사들은 교회 중심의 가족 단위로 금욕을 추구했다. 이처럼 가족과 교회 중심적인 금욕주의는 교회의 세속화를 이유로 교회를 떠나 독립적인 금욕생활을 추구한 동방 수도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다. 초대교회의 서방 수도사들은 개인의 경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 금욕적인 삶을 추구했다.

밀라노 주교 암브로시우스(Ambrosius = Ambrose. ?339-397)는 밀라노에 이탈리아 최초의 수도원 세우고 독신 생활을 권장했다. 하지만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 기독교의 수도원주의, 즉 금욕적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교부는 불가타(Vulgata)라는 라틴어 성경의 번역자로 유명한 제롬(Jerome) 즉 히에로니무스(Hieronimus. ?345-419)다. 그는 381년 예루살렘에 수도원을 세운 루피누스를 만나 일정 기간 함께 수도사 생활을 했으며 382년부터 384년까지 로마에 머물면서 마르켈라(Marcella)라는 여인의 집에서 경건과 금욕생활을 위한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기도와 공부가 결합된 형태의 성경공부모임과 같았다. 그는 수도원을 학문 연구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간주했다. 또한 그는 404년에 파코미우스의 수도규칙을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으로만 총 193개의 수도규칙이 온전히 남아 있고 헬라어 원본은 소실되었다.

히에로니무스가 로마를 떠난 후, 마르켈라가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여성들을 모아 여자 수

도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수도생활에 대해 히에로니무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직접 구운 빵, 직접 재배한 채소, 신선한 우유 등 훌륭한 땅의 소산물들이 필요한 만큼, 살기에는 충분할 만큼 제공된다. 이렇게 살면 잠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 없으며, 배가 너무 불러서 말씀을 읽기 어렵게 되는 일도 없다. 여름에는 나무 그늘이 쉼터를 제공하고 가을에는 부드러운 공기와 바닥을 덕고 있는 낙엽이 고요함을 준다. 봄에는 꽃이 가득한 초원에 씨를 뿌린다. 새의 지저귀는 노래 소리는 시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 번 알려주며, 겨울이 되어 눈 내리고 얼음이 얼어도 장작이 필요 없다. 온 몸이 따뜻해질 때까지 깨어 있거나 그냥 잠들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분명한 것은 나는 결코 추위에 얼어 떨어지는 않는다.”(칼 수소프랑크, <기독교 수도원의 역사>, 70.)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서방 최고의 교부, 히포(Hippo)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 Augustine. 354-430) 역시 서방교회 최초의 수도원 규율을 작성하고 수도원 제도를 옹호했다. 그가 밀라노에서 회심한 이후로 가는 곳마다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금욕적인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외딴 곳에 설립된 수도원에 수도사로 입문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가 감독 즉 주교로 봉사한 아프리카의 히포에서는 성직자들을 위한 공동생활(vita communis) 수도원을 설립했으며 무소유의 수도생활을 강조했다. 주교로 임명된 후로는 수도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수도공동체에서 명상하는 일은 자주 했다. 하지만 수도한다는 핑계로 노동을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카르타고 수도원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저술 <수도사들의 노동>에서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 수도원은 수도사의 노동에 대해 의견이 양분되어 있었다. 한쪽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신자들의 후원으로 생활해야 하고 생계의 원천인 노동을 거부하는 것이 복음에서의 주님의 경고를 더 잘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총 아홉 단락의 수도규칙을 작성했는데, 그 중 네 단락은 남자 수도공동체를, 다섯 단락은 여자 수도공동체를 위한 내용이었다. 물론 이 수도규칙의 저자가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인지, 저술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거리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규칙의 토대는 역시 성경이다. 그리고 원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바실리우스의 원칙과 유사하다. 히포의 주교는 자신의 수도규칙에서 당부하기를, “너희는 이 작은 책을 거울처럼 여겨 그 안에 너희를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여 잊어버렸다고 해서 어떤 것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매주 한 번씩 읽어야 한다. 너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준행하였으면, 온갖 선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할 것이다. 반면 누구든지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고 앞으로는 더 조심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용서해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도록 기도할 것이다.”(아돌라르 쥘켈러, <아우구스티누스 규칙서> 이형우 역 (왜관: 분도, 1997), 164.)

프랑스 골(Gaul. 갈리아) 수도원운동의 선구자로 불리는 뚜르의 마르탱(Martin = Martinus of Tours. ?335-400)은 뵘와띠에(Poitiers) 근처에 프랑스 최초의 수도원을 건립했다. 361년에는 힐라리우스(Hilarius = Hilary of Poitiers. ?315-368)를 만나 수도사 생활을 시작했고 리에쥬(Liege)에 수도원을 건립했으며 후에 뚜르의 주교가 되었다. 뚜르의 주교 마르탱이 추구한 금욕주의는 공동생활이라는 형식으로 수도사 각자가 은둔적인 삶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갈리아 지역의 또 다른 유명한 수도원은 지중해 근해의 섬 레랭(Lérins)에 세워진 수도원이다. 설립자 호노라투스(Honoratus. c.350-429)는 서방교회뿐만 아니라, 동방교회에서도 성자로 존경받는 인물인데, 인생 말년에 아를(Arles)의 주교가 되어 죽기까지 3년을 섬겼으며, 사후에는 그의 사촌 힐라리우스(Hilarius. 403-449)가 레랭 수도원의 수도사 출신으로 주교좌를 승계했다. 후대의 케사리우스(Caesarius. 468(470)-542) 역시 레랭 수도원의 수도사 출신으로 아를의 주교좌를 계승했는데, 그는 수도원 역사에서 여자 수도원 규율의 최초 제정자로도 유명하다.

갈리아 지역의 마르세이유(Marseille)에도 5세기 초에 수도원이 설립되었는데, 설립자는 금욕자 요한으로 알려진 요한 카시아누스(Johannes Cassianus. c.360-c.435)이다. 그는 에바그리우스를 모방함으로써 서방 수도원에 오리겐의 금욕주의와 신학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도원 설립에 관하여>(De institutis coenobiorum)라는 저술을 통해 수도원 밖의 삶을 율법에 따른 삶으로, 수도원 안의 삶을 '복음에 따른 삶'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가 설립한 마르세이유의 빅토르 수도원(Abbey of St. Victor)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 수용한 서방 최초의 복합 수도원이었다. 카시아누스의 저술은 서방의 표준 수도원 교칙을 제정한 베네딕투스(Benedictus)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 갈리아 지역의 수도원은 영국의 아일랜드 수도원의 영향도 받았다.

영국 아일랜드(Ireland)는 수도원에 의해 기독교화 된 곳으로, 수도원이 교회의 중심이었고 수도원장이 교회의 수장이었던 특이한 사례이자,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사가 미지의 개척 선교사로 파송되는 기원이다. 아일랜드 최초의 수도원 설립자는 성자 패트릭(Saint Patrick. ?390-461)으로 일상의 대부분을 침묵하며 지냈다. 그는 자주 금식할 것을 요구하는 극도의 금욕생활을 추구했다. 그는 열정적인 독서를 권장했는데 주로 성경과 교부들의 글을 읽도록 권장했으나, 고전 헬라어와 라틴어로 된 글도 읽힘으로써 수도원이 학교, 즉 학자 양성소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한 그는 처음으로 수도사들이 상급자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와 같은 일을 시행했는데, 이것이 7성사 가운데 하나인 고해성사의 기원이다. 아일랜드 수도원의 또 다른 특징은 수도사들이 고향을 떠난 사도들의 방랑 생활을 본받아 먼 곳의 다른 수도원에 가서 생활하는 전통인데, 이 전통 덕분에 아일랜드 수도사 콜롬바누스(Columbanus. 540-615)가 프랑스로 건너가 프랑크족의 골 지역과 롬바르드족(Lombards = Langobardi)의 북이탈리아 지역에 다수의 수도원을 건립할 수 있었고, 이 전통은 중세 교회가 수도사를 미지의 개척 선교사로 파송하는 기원이 되었다. 콜롬바누스는 수도원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수도사가 곧 '그리스도의 군사' 즉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심는 전도사와 선교사라는 정의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최초의 수도사다.

2. 수도원 개혁운동

2-1. 베네딕투스 수도원

누르시아의 베네딕투스(Benedictus Nursiae. 이: Benedetto da Norcia. 영: Benedict of Nursia. c.480-c.547. 베네딕트; 베네딕도)는 “서방 수도생활의 아버지”라 불린다. 그의 수도원은 서방 중세 수도원의 모델이다. 이유는 13세기 탁발수도회가 등장하기 전까지 서방 중세 수도원 대부분이 그의 수도규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중부 도시 노르치아의 시민 가정에서 태어난 베네딕투스는 로마에 공부하러 갔으나 그곳의 부패를 보고 실망하여 수비아코(Subiaco)로 가서 근처 절벽 중앙의 동굴에서 3년간 은수생활을 하면서 수도사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유명세 덕분에 비코바로(Vicovaro)의 한 수도원 원장이 되었고 나태한 수도사들을 엄격하게 지도하다가 독살의 위험을 겪은 후 수도원을 떠났다. 529년에는 남이탈리아 몬테 카시노(Monte Cassino. 카시노산)에 수도원을 설립하여 542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곳에서 자신이 제정한 수도원 규칙에 따라 생활하면서 가르치고 설교했다. 베네딕투스가 몬테 카시노에서 죽기 10-15년 전에 작성한 “수도 규칙”(Regula monachorum)은 이후 서방 수도원운동의 표준 규칙이 되었다.

베네딕투스 규칙(Regula Benedicti)으로 알려진 “수도 규칙”에 따르면 수도원의 표어는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ora et labora)이고, 일상의 기도생활은 개인적 명상, 독서, 그리고 성무일도 즉 하루 일곱 번의 기도모임인 예배(opus dei)로 구성된다. 따라서 수도원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 즉 노동과 독서와 기도이다. 베네딕투스의 수도 규칙은 580년에 롬바르드족에 의해 몬테 카시노가 파괴되었을 때 수도사들 중 일부가 수도 규칙의 복사본을 가지고 로마로 도피한 덕분에 오늘날까지 전수될 수 있었다. 특히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를 통해 베네딕투스와 그의 규칙서가 명실상부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레고리우스 1세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 베네딕투스는 뛰어난 분별력과 명쾌한 표현으로 규칙서를 저술했다.” 이 규칙서는 그레고리우스 1세가 영국 선교사로 파송한 동료 수도사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of Canterbury. ?-604)에 의해 영국에도 소개되었는데, 이 수도사가 최초의 캔터베리 대주교다.

익명의 저작 “스승의 규칙”(Regula Magistri)을 새롭게 독창적으로 작성한 베네딕투스의 규칙서는 분량 면에서 이것 이전의 규칙으로 현존하는 12개 가운데 가장 긴 “스승의 규칙”과 그 다음으로 긴 “바실리우스 규칙”을 이어 세 번째로 길고, 구조와 내용 면에서 어떤 규칙서보다 더 조직적이고 완전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머리말, 66개의 본래 규정, 6개의 후대 추가 규정, 그리고 1개의 결어 등 머리말 외에 총 73장으로 구성된 내용이다. 베네딕투스 수도원이 가장 왕성한 시기는 8세기인데, 선교사 성자 보니페이스(Saint Boniface. 라. Bonifatius. c.675-754)의 노력 덕분이다. “독일인의 사도”(Apostle to the Germans)로 유명한 그는 영국 윈프리트(Winfrid) 출신으로 프랑크 왕국의 미답지인 프리시아(Frisia. 네덜란드 지역)와 게르마니아(Germania. 독일) 지역을 개척 선교했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교황 그레고리우스 3세에 의해 독일 마인츠(Mainz) 대주교로 임명되었다.

베네딕투스 수도 규칙은 수도사를 “[지금]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자, [장차] 참된 왕 주 그리스도를 위해 복무할 자, 순종이라는 최강의 뛰어난 무기를”(abrenuntians propriis voluntatibus, Domino Christo vero regi militaturus, oboedientiae fortissima atque praeclara arma) 가진 자로 정의한다. 수도사는 대장이신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하는 군사, 즉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싸우는 자라는 뜻이다. 그러려면 수도원은 “주님을 섬기는 학교”(dominici scola servitii)이어야 한다. 수도사(monachus)를 네 종류, 즉 수도원장의 지도 아래 수도원에 사는 공주수도사(coenobita), 광야에서 홀로 사는 독거수도사(anachorita) 혹은 은둔수도사(heremita), 삭발만 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라바이타(sarabaita), 항상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하는 방랑수도사(girovagus) 등으로 구분한다. 수도원의 최고 책임자, 즉 수도원장을 의미하는 호칭 압바스(abbas)는 성경의 성부 호칭 “아바, 아버지”에서 유래한 것인데, 수도원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vices Christi)로서 양을 치는 목자(pastor)와 같다. 따라서 원장은 “모든 선한 것과 거룩한 것”(omnia bona et sancta)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가르치고, 주의 명령들(mandata Domini)을 대상에 따라 각각 말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수도사 전체의 소집권과 최종 결정권은 원장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규칙을 따르는 것과 원장에게 순종하는 것은 필수이고 동등하다. 겸손의 첫 번째 덕목은 순명, 즉 순종(obedientia)인데, 윗사람(major. 장상)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같다. 가르치기(docere)는 스승의 덕목이고 잠잠하기와 듣기(tacere et audire)는 제자의 덕목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timor Dei) 역시 순명처럼 겸손의 제일 덕목이다. 성무일도는 거룩한 수 일곱에 부합하도록 아침기도(Matutinus), 제1시기도(Prima), 제3시기도(Terta), 제6시기도(Sexta) 제9시기도(Nona), 저녁기도(Vespera), 종과기도(Completorium)로 나눈다.

원장은 모범적인 수도사를 십장(decanus)으로 세워 10명의 수도사를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한다. 또한 십장의 관리 감독 아래 선배(senior. 연장자)가 후배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일을 맡는다. 수도원의 질서를 위해 성경의 가르침대로 치리를 시행한다. 먼저 선배가 한두 번 개인적인 훈계를 하고 고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책벌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파문(excommunicato) 혹은 체벌(vindicta corporalis) 한다. 파문에는 징계의 정도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가벼운 잘못에 대해서는 공동식사 즉 식탁참여(mensae participatio)

를 금지하고,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식탁(mensa)뿐만 아니라 예배장소(oratorium)에서도 제외한다. 마지막 파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와도 교제하거나 대화할 수도 없다. 하지만 원장은 마치 의사처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파문당한 자를 환자와 같이 돌보아야 한다. 즉 지속적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야 한다. 파문 후에도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체벌로 다스린다. 다양한 체벌도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수도원에서 추방한다. 추방당한 수도사가 반성하고 돌아오면 세 번까지 다시 받아들여진다.

수도원의 재산 관리 책임자는 창고지기(Cellararius)라 불리는데, 전체 공동체를 위해 아버지(pater)처럼 처신해야 한다. 마치 성경이 집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는 상당한 수준의 덕망을 갖춘 자로서 최선을 다해 병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손님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 수도원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가 맡겨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을 보조하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도원의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 소유다.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은 공동의 것이어야 한다.”(Omniaque omnium sint communia) 즉 수도원에서는 어떤 사유 재산도 금한다. 무엇이든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나누지 않고 적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게,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많이 제공한다. 불평(murmuratio)을 악(malum)으로 간주한다.

육류 먹는 것을 금지하고, 청빈(사유재산 포기. 대신에 수도원이 공동의 재산 소유), 순결(독신 생활), 순명(상급자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강조한다.

2-2. 10-11세기 Cluny 수도원의 수도원 개혁운동

당시 대부분의 수도원들은 Norman족인 바이킹과 마자르족인 헝가리인들에 의해 약탈되었고, 이것을 기회로 영주와 제후들은 자신의 지역에 있는 수도원의 원장 자리를 차지하여 그것을 사유화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수도원의 영적인 지도자로 앉힘으로써, 베네딕트 수도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도원들이 극도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때 아키텔의 윌리엄 공 3세 (William III of Aquitaine (= Guinne))가 자신의 지역에 작은 수도원을 세운 다음, 베르노 (Berno)를 그곳의 원장으로 초대하였다. 윌리엄은 베르노에게 프랑스 클뤼니를 수도원 부지로 주었고, 베르노는 거기에 새로운 수도원을 세워 910년부터 926년까지 타락한 수도원들을 개혁하고자 시도했다. 클뤼니 수도원은 봉건적 봉사의 대가로 봉토를 받지 않았고 기부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기부자를 위한 미사와 기도 이외에 다른 조건이 없었다. 클뤼니 수도원의 특징은 중앙집권화였다. 원칙적으로 교황의 관할 아래 있었으나, 전체 수도원을 관장하는 1명의 수도원장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수도원 체제로 운영되었는데, 이후로 모든 수도원은 이러한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수백의 수도원을 거느린 수도원 제국의 우두머리인 수도원장은 수도승들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각 지역의 수도원은 선도자 (prior)라 불리는 부원장들에 의해 관리되었다. 엄격한 베네딕트 규율에 따라 청빈, 순결, 복종이라는 엄격한 수도원 생활이 요구되었는데, 베네딕트 수도원과의 차이점은 개인적인 기도와 생산 활동의 비중을 줄이고, 집단적인 예배의식에 많은 시간을 할당했다는 점이다. 이 수도원 출신의 교황으로는 Gregorius 7세, Urbanus 2세, Pascal 2세가 있다. 이 수도원은 공식적으로 1790년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

*개혁의 특징: a. 독신 생활은 수도사나 수녀들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성직자의 독신제도를 확립. // b. 모든 수도사들이 한 사람의 수도원장에게 복종해야 하듯이 전체 교회가 교황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역설함으로써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황청 중앙집권체제를 예비.

2-3. 12세기 수도원 개혁운동: 수도원의 르네상스

2-3-1. 시토(Citeaux) 수도원: 대표적인 은둔수도원

11세기 초부터 클뤼니 수도원의 중앙집권체제에 반대하는 수도원들이 여기저기서 설립되기 시작했는데, 1098년 몰레스머의 로베르 (Robert of Molesme)에 의해 디종 (Dijon) 근처의 시토 (라틴명: Cistercium)에 건립된 수도원 역시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이것이 시토 수도원의 기원이 되었는데, 당시 이것은 1119년까지 “새 수도원 (novum monasterium)”이라 불렸다. 조직은 완전히 자치적인 베네딕트 수도원과 중앙집권적인 클뤼니 수도원을 효과적으로 절충한 형태였다. 즉 새로운 수도원이 설립되는 경우, 기존 수도원에서 한 무리의 수도사들이 그쪽으로 옮겨 핵심적인 집단을 이룰 뿐만 아니라, 기존 수도원의 원장은 새로 설립된 수도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규율을 준수하는지 감찰하여 여러 가지 권한 행사를 하는 “부자 혹은 모자” 관계와 같이 조직되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수도원들은 자신의 모체 수도원장에 의해 통일된 하나의 규율에 따라 지배를 받되, 모든 모체 수도원장들은 1년에 한번 시토에 모여 전체 수도원에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했다.

시토 수도회는 옛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율을 엄수하여 단별 옷과 금욕적인 소량 식사를 고수하였고, “ora et labora” 원리 철저히 실천하도록 요구하였다. 시토 수도사들은 클뤼니 수도원의 긴 예배시간을 단축시키고 개인적인 기도와 육체노동에 전념하였는데, 이때 이후로 수도원의 이상은 본질적으로 명상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수도원 내의 교회 및 기타 건물은 소박하고 화려하게 단장되지 않았다. 그들은 봉토에서 나오는 일체의 수입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기부금과 기증제도 거부하였으며 (그러나 후에는 규율을 완화하여 기부제도를 허용함), 대신에 수도사들에게 요구되는 육체노동을 근거로 그들 스스로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함으로써 자급자족하는 수도원 생활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수도사들의 육체노동만으로는 노동력이 부족하였으므로, 수도원 서역은 하되 예배와 수도에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고, 읽고 쓰기를 배우는 것이 금지된 평수사 (lay brothers)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원 유지에 필요한 대부분의 노동력을 충당하였다. 시토 수도원은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 사회에 기여하였고, 모범적인 기독교인의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교회에 이바지하였다.

베네딕트 및 클뤼니 수도원이 언제나 수도원 생활 속에서 훈육 받는 동자 수도사로 어린 소년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수도원 생활과 세속세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던 (대부분은 익숙한 세계인 수도원에 남는 것을 선택했음) 것과는 달리, 시토 수도원은 16살 이하의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모든 신입자는 1년의 수련 기간을 거친 후에 종신 수도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여 엄격하게 시행했다.

이와 같은 수도원 생활을 위한 정교한 규율들은 유명한 “Carta Caritatis”에 기록되어 있다. 수도사들이 착용한 옷 색깔에 따라 시토 수도사들처럼 옛 베네딕트 수도원 지향적인 수도사들은 “백수도사” (White Monks)로 불렸고, 클뤼니파 수도사들은 “흑수도사” (Black Monks)로 불리게 되었다. 1100년에 교황 Pascal 2세에게 승인을 얻었다.

*이 수도회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신학자는 종교 개혁가들인 루터와 칼빈까지도 존경했던 인물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버나드 = 베르나르두스 Bernard (= Bernardus) of Clairvaux. 1090-1153)이다. 부르군디의 귀족 출신인 그는 1113년에 이 수도원에 가입하였고, 2년 후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클레르보에 수도원을 설립하여 설립 원년인 1115년부터 평생 그 수도원의 원장으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시토 수도원을 전 유럽에 확대시킨 일등공신이다. 그의 공헌으로 시토 수도원은 숫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그가 죽을 무렵인 1153년에는 300개 이상이었다고 한다. 1200년경에는 530여 개로, 1250년경에는 1800여 개로 늘어났다. 2차 십자군 원정을 위한 선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후에 유대인 학살을 경험한 다음에 후회하였다. 그는 한편으로 수도원의 세상 도피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개혁을 통한 기독교 세계를 창조하려는 자세도 견지했다. 베르나르는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을 강조한 중세 신비주의자였는데, 당대의 신학자 삐에르 아벨라르 (Pierre

Abelard)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베르나르가 구분한 네 종류의 사랑은 유명하다: 자신을 위한 자기 사랑/ 자신을 위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위한 자기 사랑. 또한 마리아의 무오설을 반대하였고, 세례를 구원의 필수조건으로 보는 견해를 반대했다.

2-3-2. 성직자참사회(community of regular canons)

12세기의 교회는 수많은 사제 수도원공동체를 만들어 내었다. 이것은 이미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교회 개혁의 수단으로 교회에 재직하는 재속 사제들에게 결혼을 금지하고 독신을 장려하기 위해 준수도원적인 규율을 부과하려고 했던 것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 사제 공동체의 규율은 정규 수도원의 규율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본질적인 두가지 차이점은 사제가 아닌 수도승이 많은 정규 수도원과 달리 사제 공동체는 모두가 사제여야 했다는 것이며, 또 외부와 단절된 정규 수도원의 수도사의 생활과는 달리 사제 공동체의 사제들은 교구 사제로 일할 수 있었고, 특히 병원과 구빈원을 운영하는 데 적합하였다는 점이다. 1100년경에 이 사제 공동체의 대부분은 단일한 규율 즉 아우구스티누스 규율을 채택하였다. 그들은 속세를 떠나지 않고도 청빈과 복종의 공동생활을 강조하는 성직자들로 구성된 단체였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직자[참사]수도회(Augustinian Canons = austin canons)

9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성직자들의 타락을 막기 위해 엄격한 성직자들에게 독신 생활을 강조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수도회의 발생 기원이 되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은 지방마다 다른 관례를 따라 독자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던 많은 수사 사제단이 하나의 규율을 갖게 됨으로써 성립하였다. 이 수도회는 12-13세기에 아주 급속하게 확산되었고, 특히 영국에서는 어떤 다른 교단보다도 많은 수도원을 지니게 되었으나, 13세기까지도 하나의 통일된 교단으로 조직되지 못했다. 이탈리아에서는 1256년에 교황 Alexander 4세가 이러한 성격을 지닌 여러 수도원을 모아서 “성 아우구스티누스 규율의 은둔 탁발수도원 (the Friars Hermits of the Order of St. Augustine)” 혹은 “오스뎡 탁발수도원 (Austin Friars)”라 불렀고, 이 수도원은 1274년 Lyon 회의에서 정규 탁발 수도원으로 공인되었다. 처음 아우구스티누스 규율 공동체는 은둔자 수도회 (Hermits)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 결식수도회 (Friars = Fratres)의 성격으로 바뀌어 갔다.

대제후들만이 베네딕트 수도원이나 클뤼니 수도원을 설립할 수 있었고, 시토 수도원을 위해서는 넓은 황무지가 필요한 데 반해, 작은 비용으로 독자적인 수도원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소영주들은 영주 직할 영지의 교회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이와 같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을 쉽게 설립할 수 있었다. 영주와 수도원 관계는 설립증서 (charter)로 규정되었고, 영주는 원장과 부원장 임명에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일정한 형태가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고, 어떤 다른 수도원보다 각 지역 수도원의 독립성이 강했다. 지역에 따라 지역 교회에 속한 수도원이 되기도 하고, 지역 교회로부터 독립된 수도원으로 존속되기도 했다. 다양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규율을 따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 수도원의 구성원은 교구사제를 겸할 수 있었고, 수도사들은 검은 옷을 착용하였기 때문에 흑색 수도사들로 불렸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는 처음부터 설교와 교육에 적극적이었다. 위대한 종교 개혁가 루터는 Erfurt와 Wittenberg에 있는 바로 이 수도회 출신의 수도사였다.

*프랑스 프레몽트레 (Prémontré) 수도원

이 수도회는 1120년 베르나르의 친구인 노르베르(Norbert)에 의해 설립되었고, 베르나르의

영향으로 시토 승단의 규율이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토 승단의 조직도 모방되었다. 초기에는 교구 교회의 사제로 활동했으나, 후기에는 수도원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수도사들은 흰 옷을 착용하는 백색 수도사들이었다. 12세기에 이 수도회는 영국에서 시토 수도원과 실질적으로 거의 같아졌고, 그들이 위치한 지리적 환경도 비슷했다. 대륙에서 이 수도회의 주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유능하고 열정적인 자를 고위 재속 사제의 후보로 길러내는 것이었다.

3. 13세기 탁발수도원

3-2-1. 프란체스코(= 프란시스) 수도회

프란체스코 (Francesco = Francis. 1182-1226)는 아시시(Assisi)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1206년 아시시 교외의 황폐한 다미아니(Damiani)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제단 위에 그려진 십자가상으로부터 “프란체스코야, 가서 나의 교회를 세우거라”는 계시를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가게에서 물건을 빼내어 그것을 판매한 대금을 교회의 보수를 위해 사제에게 기증했다. 아버지가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자, 그는 집을 나왔다.

방황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한 사제가 다음과 같은 마태복음 10장 8-10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를 읽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는 “바로 이것이다, 이 일을 온 마음으로 하겠다”고 외쳤다.

그 이후로 그는 회개와 사도적 생활의 덕을 설교하며 방랑하기 시작하였다. 매일매일 그는 노동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음식을 얻으려 하였다. 일거리가 없으면 시주를 받았다. 그는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으며, 그날그날 필요한 만큼 이외에는 음식을 받지 않았다. 그는 곧 약간의 추종자들을 얻었고, 그들에게 간단한 몇 가지 규율을 정해주었는데, 이 규율은 다른 수도원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절대적인 청빈을 강조한 데 있었다.

프란체스코 탁발 수도사들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어떤 종류의 재산이든 소유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은 손수 노동하거나 구걸을 하여 살아가야 했다. 그가 만든 첫 “규율집”은 복음 전도의 의무와 청빈의 덕을 강조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1210년 프란체스코는 로마로 가서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Innocentius III)에게 이 규율의 인가를 요청하여 구두로 인가를 받아 설교를 허락 받았다.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급속히 성장하여 1217년에는 알프스 이북과 Tunis 및 시리아에까지 선교사가 파견되었으며, 1219년에는 더 대규모의 선교단이 프랑스와 독일, 헝가리, 그리고 스페인으로 갔다. 이와 같은 최초의 선교단들은 이단으로 받아들여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프란체스코 자신은 십자군과 함께 다미에타(Damietta)로 갔다가, 이집트 술탄의 궁정에까지 진출하여 술탄에게 설교하였으며, 그리고 팔레스타인으로 갔다. 1220년에 그의 추종자들이 규율을 개정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탈리아로 되돌아왔다.

1223년에 그는 두 번째의 개정 규율을 작성했으며, 이는 교황에 의해 인가되어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항구적인 공식 규율이 되었다. 이 개정 규율은 절대적인 청빈의 의무를 재확인하였으나, 정기적인 위계질서를 마련한 것이다. 1226년 프란체스코가 죽은 뒤 일련의 변화가 있었다. 1230년의 교황 칙서를 탁발 수도사들의 후견인들은 각 지역에서 교단을 대신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돈을 기증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각 지역의 프란체스코 수도회 상위자는 “필요한 경우” 그 후견인에게 자금을 요청할 수 있었다. 1245년의 교황 칙서는 이 규정의 “필요한 경

우”를 “형편에 따라”로 바꾸었으며, 교단이 점유하고 있는 모든 건물의 법적 소유권을 교황에게 귀속시켰다.

1220년대로부터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은 정규적으로 대학에서 공부하였다. 1254년에 교황 알렉산더 4세는 그들에게 주교의 허락 없이 어떤 교구에서도 설교하고 고해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양보하였다. 이는 1300년에 수정되었는데, 이 때 최종 결정된 규정에 의하면 탁발 수도사는 고해를 받으려면 주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지만, 각 주교는 교구의 인구에 비례하여 일정한 수의 고해 허가를 내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수도회 출신의 유명한 중세 신학자들로는, Bonaventura (1221-1274, 프란체스코의 전기를 기록함), Roger Bacon (?1214-1292), Duns Scotus (?1265-1308), William Ockham (c.1280-c.1349) 등이 있다.

3-2-2. 도미니코 수도회

스페인 사람 도미니코(Dominic, 1170-1221)는 프란체스코와 아주 다른 성격의 인물이었다. 그는 행정과 입법에 뛰어난 능력을 타고난 지식인이었다. 그는 까스틸(Castile)에서 태어나 사제가 되었다. 1205년에 그와 그의 주교는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를 알현했을 때, 교황은 그들을 이단인 알비파에게 설교하도록 남부 프랑스로 파견하였다. 그들은 거기서 사도적 생활을 하는 학식 있는 자로 하여금 이단자들을 설복시키는 것이 이단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도미니코는 이 생각을 실행할 교단을 창설하기로 결심하고, 1215년 제4차 라테란 회의에 나타나 설교에 헌신할 탁발 수도회의 설립에 대한 교황의 허가를 요청하였다. 회의에서는 바로 직전에 새로운 교단의 설립을 금하는 법령을 통과시켰으므로, 교황은 아주 모호해서 어떤 유형의 교회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규율을 채택하라고 도미니코에게 제안했다. 이렇게 하여 도미니코 탁발 수도회가 설립되었다.

도미니코 수도회의 수도사들은 회색 옷 탁발 수도사들 (Grey Friars)이라 불리던 프란체스코 수도사들과 구별하여 검정 옷 탁발 수도사들 (Black Friars)로 불리었다. 사람들은 이들을 “도미니카네스 (Domini-canes)라 불렀는데, 이것은 주님의 개들이라는 뜻이다. 첫 도미니코 수도원은 툴루즈 (Toulouse)에 세워졌다.

도미니코 수도회의 규율에는 청빈한 생활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프란체스코만큼 강조하지는 않았으며, 육체노동가 나환자 봉사 등에 대한 강조는 아예 없었다. 도미니코 수도회의 주된 기능은 설교였으며, 이를 위해 탁발 수도사들은 신학적 소양을 충분히 쌓아야 했다. 고행보다는 연구를, 예배의식보다는 설교를 중시하였다. 그래서 도미니코 수도회는 소속된 수도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여러 등급의 학교를 설립했다. 수도사들은 교양학부 (studium artium)에서 2년, 자연학부 (studium naturalium)에서 3년을 배운 다음에야 최고 학부인 신학부 (studium theologiae)로 진급할 수 있었다.

도미니코 수도회 규율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지적인 연구를 강조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 시 하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수도회를 교묘하고 치밀한 대의제적 (대표자들의 회의 체제) 구조로 조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수도회 출신의 중세 신학자들로는 Albertus Magnus (?1193-1280), 그의 제자인 Thomas Aquinas (1225-1274), Meister Eckhart (= Eckhart von Hochheim, c.1260-1327), Johann Tauler (c.1300-1361), Girolamo Savonarola (1452-1498) 등이 있다.

4. 중세수도원 영성의 부정적 유산

필립 샤프는 수도원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수도원주의는 로마제국과 야만족들 사이에서 이교의 몰락과 기독교의 승리를 촉진”하고 “대도시들의 세속성, 경박성, 부도덕성”을 경고하는 역할과,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에게는 평온한 안식처를 제공”하며 “병자들에게는 도덕적 질병을 치유하는 병원”의 역할을, “건강하고 완성한 사람들에게는 도덕성” 연마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또한 “수도원주의는 부자와 가난한 자, 귀한 자와 천한 자를 같은 차원에 둠으로써 인간이 본래 하나이며 평등하다는 사실”을 각인시켰으며, “나그네에게는 쉼 곳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제공했다. 명상과 자기 교정과 영적 훈련을 위한 좋은 학교였다.”(필립 샤프, <니케아 시대와 이후의 기독교> 교회사전집 3권, 167)

뿐만 아니라, “수도원은 성직자들을 많이 배출해 낸 신학교”의 역할도 감당하는 훌륭한 교육기관이었고, “성경과 교부들의 저서, 고대의 고전들을 근면히 필사함으로써” 중세 유럽의 문명을 오늘날까지 전해준 지적 유산의 보고(寶庫)다. 한마디로, 교육 및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중세수도원은 중세 유럽을 기독교 세계로 만든 일등공신이다. 수도원 없는 중세 유럽은 상상하기 힘들다. 미지의 땅에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수도원이 먼저 세워졌다. 중세 수도사는 개척자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없는 곳은 있었지만 수도원 없는 곳은 없었다. 수도사들은 사제와 주교가 되어 교회를 섬겼다. 특히 13세기 이후 탁발수도회 수도사들은 거의 대부분 사제 서품을 받아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학위를 받아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쳤다.

서방이든 동방이든 유럽의 중세 세계는 기독교 신앙에 의해 이룩되었고 유지되었다. 당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는 세상과 사람보다 더 복된 것은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동경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중세는 수도원 운동이 가장 왕성했던 시대였다. 수도사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도 이 세상에서보다는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목상하고 관상하는 일이 더 고상하고 거룩한 영성을 개발하는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마치 중세 세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도원적 세계와도 같았다.

이러한 수도원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이 세상에서 멀어질수록 더 우수한 것”이라는 명제를 양산했다. 기독교 신앙의 공간적 분리운동은 오랫동안 중세인들을 만족시켰다. 그래서 중세의 개혁운동은 대부분 수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세상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된 중세의 수도원은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 즉 신앙의 현재정보다는 미래성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이러한 중세의 공간적 이탈 신앙은 “부패한 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를 조장했다. 즉 거룩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부터 도피한 수도원의 “따로 공동체”는 중세 사람들에게 천국을 상징하는 역할을 넘어서 때론 천국의 관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중세의 수도원들은 모두 도시나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곳에 위치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잘못이다. 중세 수도원들은 대부분 마을 가까운 곳 혹은 도시 안에 세워졌다. 그것들은 공간적으로 세상 혹은 사회 속에 있었지만 스스로를 세상과 사회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했다. 그것은 불가시적인 거룩함을 위한 게토(getto)를 지향하는 것이었으나, 실로 가시적 수도(修道)를 위한 공간적 게토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중세 수도원이 지향한 공간적인 “외적 거룩함”을 인정받을 수는 있었으나, 그들의 “내면적 거룩함”은 의심받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가난 즉 무소유를 통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유재산이 없는 수도사들은 가난했으나, 수도원은 공적 보조뿐만 아

나라, 사적인 기부로 인해 부유했다. 그리고 그 부의 일차적인 수혜자들은 다름 아닌 수도사들이었다. 수도사들은 형식적으로는 가난했으나 실제로는 부자였다. 수도원의 부는 “기도하고 일하라(Ora et labora)”라는 수도원 계명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었다. 그것은 기도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으로, 노동을 단순히 고상한 정신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수도사들은 두 길 사이 즉 “거룩함에 대한 순수한 동경과 추구”와 “세상적인 필요와 본능적 욕구” 사이를 오가며 이중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이중적 삶을 수도원 밖의 사람들이 인식하면서부터 수도원적인 거룩함은 “외식” 이상의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 때 수도원이 추구한 거룩한 영성은 단지 공간적 분리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중세 후기에 수도원 밖의 사람들은 더 이상 수도원에 속한 사람들을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중세수도원이 추구한 탈세속화의 종국적 비극이다. 게토화의 상징인 수도원 안에 살면서 세상적인 것보다는 거룩한 것을 추구한 수도사들의 신앙과 삶 사이의 괴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거룩한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비중을 두었던 일반인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중세 수도원의 게토화는 단지 세상으로부터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도회들 사이에도 일어났다. 서로 다른 수도회들 사이에는 비교우위 심리와 적대감이 팽배했다. 시기와 질투와 비난이 난무했다. 한마디로 중세 수도원들은 집단 이기주의의 온상이었다.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습득한 모든 지식은 그들이 속한 집단을 다른 집단과 분리시키고 그 정당성을 옹호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중요한 변호 수단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이기주의 현상이 비단 중세수도원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다. 수도원제도를 모판으로 삼은 모든 중세 성당들에서도 예외 없이 일어난 일이다. 한 도시와 마을에서 독재의 전횡을 휘둘렀던 실체는 교황이 아니라, 그 교구의 대성당이었고 그 대성당의 수석사제인 대주교였다. 오늘날 대형교회와 그 담임목사가 실로 중세 대성당과 대주교와 너무나도 닮은 것처럼 느끼는 것은 소형교회와 그 담임목사가 가진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편견에 불과한 것일까?

기독교의 거룩성과 세속성 사이의 갈등은 중세 수도원의 영성 운동을 통해 극복된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되었을 뿐이다. 그들은 모든 세속적인 외양을 경멸함으로써 “구별된 거룩”을 추구했으나, 가장 세속적인 속성인 “내적 교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것은 그들의 이중적인 외적 삶을 가능케 하고 유지시키는 내적 이중성이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는 외적인 구호와 내적인 욕구가 서로 다른 야누스의 모습이면서도 정작 자신이 그와 같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무지가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완전히 제거해버린다는 사실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이다. 이 비극이 바로 한국교회의 비극이요, 한국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의 비극이다.

종교개혁가들은 그와 같은 수도원적 영성의 독소와 맹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수도원 제도를 반대했다. 따라서 수도원은 개신교 유산 목록에 기록될 수 없었다. 그런데 유형적인 수도원의 유산을 전혀 물려받을 수 없는 오늘날 한국개신교회는 이상하게도 마치 수도원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형적으로 한국교회의 개신교 기도원이 바로 그와 같은 유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기도원은 한국개신교의 매우 독특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큰 교회들은 대부분 자체 기도원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기도원과 자매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의 기도원은 여러 가지 면으로 한국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아마도 개신교 영성 개발의 핵심 역할을 감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너무나도 많다. 중세 수도원들처럼 한국의 기도원들 역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원론에 근거한 탈세속화라는 심각한 부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세속화를 걱정하거나 도무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고민거리를 해결하고 싶을 때 기도원을 찾아간다. 또한 기도하기 위해 홀로 교회를 찾거나 새벽을 깨우기도 한다.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경향은 오늘날 한국개신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교회는 최소한 세상이라는 장소보다 교회라는 장소가 좀 더 거룩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들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성도들을 종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교회 밖의 일은 “세상적인 일”이요, 교회 안의 일 즉 교회의 일만이 “거룩한 일”이라는 전제를 근거로 좀 더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당 건축”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전건축”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 역시 이러한 장소적 거룩성을 은연중에 옹호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회라는 이름의 화려하고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안달이 난 한국교회를 볼 때마다 마치 자신들의 이름을 들내기 위해 쌓기 시작한 “바벨탑”이나 중세의 대성당들이 연상되는 것은 까닭 없는 것인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때 문화적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교회=성전”이라는 형식을 탈피하고자 하지만, 그 시도는 단지 거룩한 장소의 유형적 개념만 제거한 것이지 그것의 무형적 개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무형적 개념은 교회 프로그램을 통한 “우리 교인 만들기”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특별새벽기도운동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좀 더 신랄하게 비판하자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신앙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우리 교회”의 차별화를 통해 자기집단을 다른 집단과의 비교우위에 놓으려는 집단이기주의의 방어기제에 불과하다.

교회들 사이에 자발적인 화합이나 순수한 그리스도 중심의 연합을 찾아보기 힘들다. 큰 교회들이 멀리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타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경쟁하듯 열심을 내지만 가난한 이웃 상가교회나 지하교회를 돌아보는 일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실정이다. 큰 교회는 이웃의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작은 교회는 이웃의 큰 교회를 비방한다. 비교와 경쟁 심리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동일하게 존재한다. 다만 그 표현 양상이 다를 뿐이다.

이웃 교회와의 공간적인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은 멀어지고 오히려 적대감만 커진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교회라고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면서 서로를 적대시할 수 있는가?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교회”(혹은 “우리 교단”)라는 집단이기주의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집단 이기주의의 기저에는 교회가 도시와 사회 속에 있지만 그것에 동화되거나 그곳에 침투하여 동화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구별된 거룩한 집단으로 군림하고 싶은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교단과 교파, 심지어 이단종파를 불문하고 “거룩”의 개념을 장소적인 개념, 즉 “교회 정문 안의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러한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우리 교회”라는 개념과 만나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히게 한다. 즉 그 두 요소는 “우리 교회(교단)만 거룩한 교회”라는 등식을 쉽게 만들어 낸다. 그러나 어느 교회도 이러한 분석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교회들도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교리적 구호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모습은 전혀 다르다. 실상은 심각한 집단이기주의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교회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정당한 일이다. 교회

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구별이 교회 자체의 거룩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거룩성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죄인들로 구성된 죄인공동체인 세상 속의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다. 연약하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떤 특정 교회, 특히 거룩과 경건을 중시하는 보수교회에 소속 되어 있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다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정하시는 교회,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만이 참된 교회이다. 스스로 머리임을 자처하면서 아귀다툼하는 곳은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일 수 있으나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회는 스스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는 일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섬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일 것이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 속에서 희생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들을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교회의 거룩함이란 외적인 일이나 장소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목적과 의도에 의해 구별되는 것이다.

세상은 겉모양과 결과 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한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외적인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의 문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고 대신에 외적인 결과주의에 사로잡혀 산다는 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땡 잡는 것이 매”라는 식으로 해석한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참된 믿음 즉 내면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다. 이것이야 말로 코람데오(Coram Deo)의 정신, 신행일치의 삶을 회복하는 길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유익이나 “우리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거나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유익을 추구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외적인 조건으로 구별하고 구분하기 위해 분주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와 동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열심을 다할 것이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거룩한 자로 구별하는 이중적인 인격으로 살기 보다는 그리스도의 유익을 추구하면서도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정직하고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